

고마미야 신사. 휴가 산산우마 전통

고마미야 신사에 있는 수많은 말 석상을 보면 이 지역의 역사에서 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미야자키현 주변은 적어도 나라 시대(710-794)부터 말의 번식지로서 유명했으며, 고마미야 주변에는 수 세기에 걸쳐 수많은 번식장이 존재했습니다. 그중 하나인 다테이시는 신사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전설 속 초대 천황인 진무 천황의 구전과 관련된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구전에 따르면 용신이 어린 진무 천황에게 다쓰이시라는 말을 선물했는데, 이 말은 진무 천황과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위대한 지배자가 되기 위해 고향 마을을 떠나고자 했던 진무 천황은 자신의 애마를 두고 가야만 했습니다. 진무 천황과 다쓰이시는 에도 시대(1603-1867)까지 말 방목지가 있었던 다테이시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오비번(지금의 미야자키현 남부 연안부)의 다이묘(영주)였던 이토 가문은 신앙과 비호의 상징으로서 매년 고마미야 신사에 말을 봉납했습니다. 매년 치러지는 축제에서는 주변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말을 주제로 춤을 선보이거나 말 경매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니치난시 전역에서 신혼부부가 화려한 장식을 두른 말에 올라타 행진하는 등 다양한 행사에서 등장하는 '산산우마'의 전통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산산이란, 말 장식에 달린 종이 울리는 소리에서 기원했다고 추정됩니다.